

## [교3] 15분 모의고사 Final 2주차

이름 :	풀이시간:	분	점수: / 총 100점 (각 10점)
------	-------	---	----------------------

1.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모아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에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대상 어휘]**

틈, 겨울, 사이

**[분석 방법]**

- 주어진 문장의 { }에 있는 단어들을 교체해 보면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단어 앞에 \*를 표시한다.
- 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단어의 의미 특성을 파악한다.

**[1차 분석 결과]**

- ㄱ. 나는 요즘 너무 바빠 쉴 {틈, 겨울, 사이}이/가 없다.
- 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벽의 갈라진 {틈, \*겨울, \*사이}에서 물이 새요.
- ㄷ. 서울과 인천 {\*틈, \*겨울, 사이}에 신도시가 들어섰다.
- ㄹ. 언니와 나는 {틈, \*겨울, \*사이}만 나면 싸웠다.

- ㄱ을 보면 '틈', '겨울', '사이'는 모두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ㄱ과 ㄴ을 종합하면 '틈'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ㄱ과 ㄷ을 종합하면 '사이'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ㄷ과 ㄹ을 종합하면 '사이'와 '틈'은 [시간]의 의미를 세분해야 구별할 수 있어.
- ㄱ~ㄹ을 종합하면 '겨울'은 [시간]의 의미만 지니고 있어.

2.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ㄹ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이슬란드는 지진과 화산 분출 같은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한 화산섬이다. 동서로 약 540 km, 남북으로 약 350 k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일부 지역이 지난 2만 년 동안 쌓인 용암으로 뒤덮여 있다. 활발한 지각 변동 덕분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화산의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온천수로 작물을 재배하며, 화산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인 위치는 매우 특수하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슬란드는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선인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의 해저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은 북극해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남쪽 끝까지 긴 산맥의 형태로 뻗어 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아이슬란드는 서쪽은 북아메리카 판, 동쪽은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판의 경계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육지 위에서 두 판이 확장되는 희귀한 지역이다. 아이슬란드가 위치한 판의 경계에서는 새로운 암석이 생성되면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른 판의 경계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지질학적 현상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갈라져 있는 틈이 매년 약 15 cm 씩 벌어지고 있다. 이 벌어지는 틈으로 해양 지각의 하부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해양 지각은 멀어져 가는 판의 일부가 되어 이동한다. 그 결과로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은 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판의 절대 속도를 잴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판에 대한 유라시아 판의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추정하여 판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낸 판의 이동 속도는 이동하는 판 위에서 이동하는 다른 판의 속도를 잰 것이다. 이는 한 판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판의 속도, 즉 상대 속도이다. 과학자들은 상대 속도를 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판의 절대 속도, 즉 지구의 기준점에 대해서 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고자 했다. 판의 절대 속도를 ㉠ 구하기 위해서는 판의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맨틀 깊숙이 위치한 마그마의 근원지인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00여 개의 열점을 찾아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슬란드에 있다.

3. 위 글로 보아 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판이 확장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ㄴ. 판의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ㄷ.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ㄹ. 판의 생성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슬란드는 지열 산업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 ② 아이슬란드의 크기는 서서히 커지고 있을 것이다.
- ③ 북아메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것이다.
- ④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출은 판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5. 위 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 ② 아이슬란드는 어떤 판 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 ③ 아이슬란드의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 ④ 확장되지 않는 판의 경계에서는 어떤 지질 현상이 일어날까?
- ⑤ 과학자들은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귀성 차표가 매진되기 전에 빨리 구해야겠다.
- ② 농사철에는 일꾼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③ 그는 한 시간 내에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④ 철수는 영수의 동의를 구한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 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일수록 답을 구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날 사향이 틈을 타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남자의 사사로운 그릇 속에 감추었더니 그 후에 부인이 잔치에 가려고 봉차를 찾으려 보니 간 데 없는지라. 괴이하게 여겨 세간을 내어 살펴보니 장도 또한 없거늘 모든 시녀를 죄 주었다. <㉠>

이때 사향이 들어오며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하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옥장도와 금봉차가 없으니 어찌 찾지 아니하리오?”  
사향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고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숙향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세간을 뒤지더니 무엇인가 치마 앞에 감추어 가지고 자기 침방으로 갔으니 수상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숙향의 방목 같은 마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사향이 말하기를,  
“숙향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근간 혼인 의논을 들은 후로는 당신의 세간을 장만하노라 그러하든지 가장 부정함이 많습니다. 어쨌든 숙향의 세간을 뒤져 보십시오.” <㉡>

부인이 또한 의심하여 숙향을 불러 말하기를,  
“봉차와 장도가 혹 네 방에 있나 살펴보라.”  
숙향이 말하기를,  
“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겠습니까?”

하고 그릇을 내어 친히 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지라.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네 아니 가져왔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어 있느냐?”

하고 승상께 들어가 말하기를,  
“숙향을 친딸같이 길렀으나 이제 장도와 봉차를 가져다 제 함 속에 넣고 종시 몰라라 하다가 제게 들켰사오니, 봉차는 계집의 노리개니 이상하지 않으나 장도는 계집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 그 일이 가장 수상합니다. 어찌 처치하면 마땅하겠습니까?” <㉢>

사향이 곁에 있다가 고하기를,  
“요사이 숙향의 거동을 보오니 혹 글자도 지으며, 외인이 자주 출입하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승상이 대경하여 말하기를,  
“제 나이가 차음에 필연 외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을 것이니 빨리 쫓아내십시오.”

(중략)

숙향이 천지 아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 위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리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니, 사향이 발을 구르며 숙향을 이끌어 문밖으로 내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하기를,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만일 승상이 아시면 큰일

나라라.”  
하거늘, 숙향이 멀리 가며 승상 집을 돌아보고 울며 가더라. <㉣>

한 곳에 다다라 문득 보니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을 헤매다가 날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김수건을 쥐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지라 모두 탄식하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더라.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든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가 연엽주를 바삐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버리 버리십니까? 저희는 향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A]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뜨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 금봉차: 금으로 만든 봉황 모양의 비녀.
- \* 옥장도: 옥으로 만든 장식용 칼.
- \* 김 상서: 숙향의 아버지.
- \* 소아: 달나라에 사는 선녀. 숙향의 전생의 이름.
- \* 적강: 죄를 지어 인간계로 쫓겨남.
- \* 태을: 숙향의 장래 배우자인 이선의 전생의 이름.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8.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ㄱ~ㄴ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인물	역할	사건의 내용
사항	( ㄱ )	도둑질의 누명을 씌움
		( ㄴ )의 누명을 씌움
승상	심판자	( ㄷ )
숙향	피해자	( ㄹ )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공모자 | 부정한 행실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② 공모자 | 내통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 ③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입증함 |
| ④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⑤ 음해자 | 부정한 행실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9.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고난의 해결은 초현실적이다. 당시 독자들이 숙향과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당시 독자들은 숙향의 패배와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숙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한 까닭이다. 요컨대,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悲感)을, 숙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숙향전’에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향의 적강은 당시 독자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군.
- ② 용녀의 보은은 당시 독자들에게 인과응보의 이치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군.
- ③ 숙향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당시 독자의 비감을 증대시키려는 것이군.
- ④ 옥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독자들이 타고난 운명을 비

- 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군.
- ⑤ 숙향과 태율이 만나는 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안정된 현실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10. <보기>의 ‘전기수’처럼 위 글을 읽다가 멈추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 보 기 〉

전기수(傳奇叟)는 ‘숙향전’, ‘소대성전’ 등과 같은 국문소설을 장소를 바꿔가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책을 읽어 가다가 사람들이 꼭 더 듣고 싶어 할 만한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닦두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邀錢法)이다. 전기수의 이런 수법은, 한 장회를 끝낼 때 새로운 사건의 첫 부분만 짧게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고소설의 장회 나누기 방법과 같은 원리이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수고하셨습니다.☺>